

모의고사 지문 분석

부록

2023학년도 시준5 제3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혐오 표현의 법률적 제재에 대한 논의

지문 평가

(가)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형사 처분을 초점으로 삼아 '드워킨'과 '월드론'의 입장을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에서 혐오 표현 규제를 위한 요건을 파악했다면, (나)에서는 이를 토대로 실제로 혐오 표현 금지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림돌들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Keyword

(가) 인문 - 철학 - 혐오 표현,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 밀, 해악의 원칙, 드워킨, 월드론, 롤스, 질서 정연한 사회, 암묵적 확산, 혐오 표현 금지법, 암호화된 혐오 표현, 대항 표현, 명시적 확산

(나) 사회 - 법학 - 혐오 표현 금지법

유럽 인권 재판소, 헌법 재판소, 공리주의의 원칙

(가) 문단 1 혐오 표현과 해악

- 1) **혐오 표현**이란 인종, 장애, 종교 등 어떤 속성을 지닌 집단에 대한 모욕이나 비하, 증오 선동의 표현으로, 그 집단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한다. 이에 대해 형사 처분을 해야 하는지, 표현의 자유에 말려야 하는지는 그 해악에 달려 있다.

▶ '혐오 표현'에 대한 형사 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동의하는 것이다. 반대로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에 맡긴다면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반대하는 것이다.

▶ 이때 혐오 표현의 '해악'은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맥락 읽기 ▶ 그렇다면 이어지는 설명에서 해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 2) **밀의 '해악의 원칙'**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해악을 막으려 할 때에만 개인을 규제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도 이를 수용하므로, 혐오 표현이 폭력이나 명예 훼손처럼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해악을 끼친다면 그 규제에 동의할 것이다.

▶ '해악'의 의미가 밀의 '해악의 원칙'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핵심은 '개인에 대한 분명한 해악'인 경우에만 혐오 표현의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즉 혐오 표현의 해악이 '어떤 속성을 지닌 집단'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혐오 표현을 형사 처분 해야 한다는 입장은 힘을 얻게 된다.

(가) 문단 2 드워킨 - 표현의 자유 확보

- 1) **드워킨**은 혐오 표현의 해악이 과장되어 전해진다고 본다. 아울러 민주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존엄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므로, 그 보호 과정에서의 해악은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드워킨'은 혐오 표현의 해악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감내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혐오 표현의 형사 처분에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혐오 표현의 해악을 최소화해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 2) 표현의 기회를 빼앗긴 상태에서 개인은 다수의 결정에 수동적인 피지배자일 뿐이므로, 책임감 있는 행위자로서의 존엄성을 주려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개인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혐오 표현의 해악을 감수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3) 드워킨은 최근 독재자가 아닌 평등이나 공공성 같은 긍정적 가치들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존중하는 가치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적 영역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표현을 규제하면 결국 권력이 승인하는 표현만을 보호하는 상황이 도래한다.

▶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자. '권력이 승인하는 표현만을 보호'하는 상황은 2)의 '다수의 결정에 수동적인 피지배자'가 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표현이다.

- 4) 또한 드워킨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여 그들의 '자유'를 신장하려는 법률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조차 그 표명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소수자로 이해하면 된다. 이때 드워킨이 소수자를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이들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다른 이들의 자유 또한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주목 ▶ '자유'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자유'를 막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가) 문단 3 월드론 - 해악의 방지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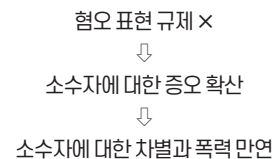
- 1) 이에 대해 **월드론**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근거가 약하며, 드워킨이 해악의 방지를 더 우선하는 가치로 두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 문단2의 '드워킨'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반면 '월드론'은 오히려 혐오 표현의 해악을 방지하는 데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비해 '해악의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 즉 혐오 표현에 대한 형사 처분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 2) 또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려면, 그 출발점인 소수자에 대한 증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드워킨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려면' 그러한 목적의 법률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해당 법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라도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문단2-4].

▶ 반면 월드론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려면 애초에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차별과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의 어떤 법률을 도입하더라도, 결국 차별과 폭력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혐오 표현'을 규제하지 않는 한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막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 이는 혐오 표현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한다는 것과 관련이 깊다[문단1-1]. 혐오 표현은 단순히 순간적인 해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증오를 확산시키고, 따라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생산에 계속해서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파급 효과로 인해 '월드론'은 표현의 자유보다도 해악의 방지가 더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한 것이다.

- 3) 무엇보다 혐오 표현은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존엄성을 손상시킨다. 이때의 존엄성은 개인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법적인 지위로서의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혐오 표현은 사회적 지위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

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

➡ 월드론이 혐오 표현에 대한 형사 처분에 동의하는 두 번째 논거다. 드워킨은 혐오 표현의 해악이 과장된다고 주장하지만[문단2-1], 월드론은 혐오 표현의 해악이 실제로 크다고 본다. 사회적, 법적 지위로서의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주목 ▲ 이처럼 드워킨과 월드론이 '존엄성'을 달리 정의하였기 때문에 혐오 표현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다.

드워킨의 '존엄성'	개인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철학적 개념 ⇒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는 것
월드론의 '존엄성'	사회적이고 법적인 지위로서의 개념 ⇒ 혐오 표현에 의해 침해되는 것

4) **틀스**에 의해 제기된 **‘질서 정연한 사회’**는 모든 시민들이 서로 정의의 원칙들을 받아들임을 알고 그에 기초한 사회 구조와 법을 따르는 상태를 말한다. 즉 소수자의 존엄성도 안전하다는 ‘암묵적 확신’을 주는 사회이다.

➡ ‘질서 정연한 사회’는 사회적 지위로서의 개개인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즉 소수자의 입장에서 어느 시민이든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할 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암묵적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회다.

➡ 그런데 혐오 표현은 소수자의 ‘암묵적 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한 명으로부터의 혐오 표현이라도 그로 인해 ‘어느 시민이든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무너진다는 뜻이다. 즉 이제는 어느 시민이든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혐오 표현의 해악은 크다.

참고 ▼ ‘질서 정연한 사회’는 두 가지 조건을 갖는다. 첫째,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이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그 사회의 모든 제도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며 그 사실이 구성원들에게 알려져 있어야 한다.

(가) 문단 4 월드론의 입장에 대한 비판과 반박

1) 월드론은 **‘혐오 표현 금지법’**이 암묵적 확신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 여긴다.

➡ 앞선 맥락에 이어, 월드론은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면 소수자들은 ‘질서 정연한 사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2)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취약한 집단을 조롱하는 방법을 가르쳐, **‘암호화된 혐오 표현’**을 양산할 우려가 제기된다.

➡ 다만 ‘혐오 표현 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암호화된 혐오 표현’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 쉽게 말해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혐오 표현의 범위가 제시됨에 따라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교묘하고 악의적인 혐오 표현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3) 그래서 규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대항 표현’**을 통해 혐오 표현의 해악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항 표현이란 예컨대 국가가 인종 차별은 나쁘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를 통해 존엄성이 안전하다는 **‘명시적 확신’**을 줄 수 있다.

➡ 이때 ‘규제에 반대하는 이들’을 단순히 ‘드워킨’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드워킨은 혐오 표현의 해악 자체가 과장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이다[문단2-1]. 이들은 혐오 표현의 해악을 분명 억제해야 하지만, 월드론의 방식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 제3의 입장에 가깝다.

➡ ‘규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따라서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대신에 ‘대항 표현’을 제안한다. 이는 정부 등이 혐오 표현에 대한 반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 ‘명시적 확신’은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부 차원의 캠페인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표명하는 것으로, ‘암묵적 확신’→ 겉으로 표명되지 않아도 정의로운 제도와 법률로 인해 소수자의 존엄성도 안전하다는 확신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4) 이에 대해 월드론은 ‘그것이야말로 혐오의 가능성을 부추기며, ‘인종 차별주의에 “노(NO).”라고 말하세요.’라고 표시된 전광판은 전체 주의적인 산물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 월드론은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명시적으로 선언되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혐오 표현을 유발한다고 반박한다.

➡ 어떤 집단에 대한 혐오를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발화가 반복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집단에 대한 혐오가 가능하다는 점을 떠올리게 해서 오히려 혐오 표현을 유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나) 문단 1 혐오 표현 금지법의 필요성

1) **유럽 인권 재판소**는 혐오 표현의 해악을 인정하면서 기본권 제한의 기본 원칙들을 준수하는 선에서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우리 **헌법 재판소**도 2019년에 학생 인권 조례의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국내외에서 실제로 ‘혐오 표현의 해악’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규제를 인정했다는 것은, 혐오 표현이 실제로 개인에 대한 해악으로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가) 문단1-1]. 이는 곧 ‘혐오 표현 금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2) 그런데 혐오 표현 금지법의 제정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음에도 혐오 표현에 대한 형사 처분을 정당화하는 과정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걸림돌이 존재한다.

➡ (나)에서는 혐오 표현 금지법을 실제로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걸림돌’을 지문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맥락 짚기 ▼ 그러나 (가)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형사 처분’이 수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리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

(나) 문단 2 혐오 표현 금지법의 현실적 난관

1) 명예 훼손이나 모욕이 개인, 혹은 구성원이 특정된 집단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혐오 표현은 집단 전체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피해를 입은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분을 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대상 집단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 첫 번째 걸림돌이다. 혐오 표현의 해악이 인정된다면 그것이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해악을 끼쳐야 하는데[(가) 문단1-2], 다만 현실적으로 혐오 표현은 ‘특정 소수자’가 아니라 ‘소수자 집단’을 향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해악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그렇다고 해서 ‘소수자 집단’에 속한 모든 소수자들이 혐오 표현에 의해 일반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어떻게 생각하든 소수자 개인이 혐오 표현에 의해 고통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혐오 표현의 해악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형사 처분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2) 혐오 표현의 해악을 사회적 해악으로 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위의 혐오 표현까지 처벌해야 하는지도 모호하다. 소수자 집단에 대한 직접적이고 높은 수위의 표현보다도 ‘특정 소수자 집단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 방송이나 인쇄물을 통해 노출되는 것이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처벌 대상과 형량을 정함에 있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 두 번째 걸림돌이다. 설령 혐오 표현의 해악을 긍정하더라도, 객관적 기준을 갖고 처벌하기가 어렵다. 각 혐오 표현으로 인한 해악이 어느 정도인지를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 한편 밀은 '해악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공리주의의 원칙**을 더했는데, 그에 따라 형사 처분 하는 비용 대비 사회 전체가 얻는 복리가 더 큰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 세 번째 걸림돌이다. 혐오 표현의 해악이 존재하더라도, 만약에 혐오 표현을 '형사 처분 하는 비용'이 '사회 전체가 얻는 복리'보다 작으면 혐오 표현에 대한 형사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옳다. 즉,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혐오 표현에 대한 형사 처분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혐오 표현의 해악이 실재함
- [혐오 표현을] 형사 처분 하는 비용보다 사회 전체가 얻는 복리가 더 큼

➡ 가령 (가)의 문단2의 '드워킨'은 혐오 표현의 해악을 분명히 인정한다. 다만 그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더욱 우선시하는 입장이므로, 드워킨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혐오 표현의 해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혐오 표현을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비용이 복리에 비해 더 크다.

(나) 문단 3 혐오 표현 금지법의 대안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혐오 표현 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들에서도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항 표현 정책을 마련하거나 일반적인 형사 처분 이외에 다른 규제책을 찾아 도입하는 등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 특정 개인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증오 선동의 표현에 한해 형사 처분을 한다. 증오 선동의 표현은 임박한 현재의 위험을 초래하여 개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므로 형사 처분이 가능하다.

➡ '특정 개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만큼 (나)의 문단2-1)과 같은 걸림돌은 문제 되지 않는다. '해악의 원칙'에 따르면 폭력이나 명예 훼손처럼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는 규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특정 개인이나, 구성원이 특정된 집단을 향한 명예 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혐오 표현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 가중 처벌을 한다. 직접적인 괴롭힘이 혐오에 기초한 경우에도 가중 처벌을 한다.

➡ ㉠와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해악의 원칙'에 비추어 수용 가능하다.

➡ 다만 방식이 ㉠와는 다르다. ㉠는 혐오 표현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는 명예 훼손죄 등에 대해서[→ 이미 '특정 개인'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혐오 표현이 포함되어 있을 때 가중 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 공공성이 있으며 공적 자산이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공적 영역에는 행정적 조치로의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공적 영역에서의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 공직자나 공무원의 혐오 표현, 방송에서의 혐오 표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 ㉢는 공적 영역에 한하여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 방송에서의 혐오 표현이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나)의 문단2-2)]도 고려한 조치이다.

주목 ▲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는 기본적으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는 조치들에 해당된다. 즉 월드론은 동의하겠지만 드워킨은 동의할 수 없는 조치들인 것이다.

∴ ㉣번 선지가 적절하다. 비록 혐오 표현이 공적 영역에 한해서 금지되는 것이더라도, 드워킨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혐오 표현으로 인한 해악의 방지에 비해 중요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 금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감

목성족 행성의 공전 궤도

지문 평가

표면에 드러난 정보들에만 주목한다면 쉬워 보이는 지문이다. '라그랑주 점', '궤도 공명', '공명 호핑' 등이 각각 무엇인지 이해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념들 간의 연결점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퍼지 경계의 영역에 진입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독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기>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자.

Keyword

과학 - 천문학 - 행성

행성, 목성족 행성, 공전 주기, 삼체문제, 제한된 삼체문제, 라그랑주 점, L1, L2, 궤도 공명, 퍼지 경계 이론, 공명 호핑, 퍼지 경계의 영역

문단 1 목성족 행성

- 1) **행성**은 태양계의 외곽에서 유래하는 작은 천체로, 얼음과 먼지 등으로 구성된 핵과 이를 감싸는 기체층인 코마, 그리고 코마의 일부가 길게 드리워진 꼬리로 이루어져 있다.

▶ 행성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 2) 행성 중에는 태양계를 통과하거나 태양계의 다른 천체와 충돌하여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태양계에 포획되어 행성들처럼 원형에 가깝게 일정한 주기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이 중에서 태양과 목성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 포획된, 비교적 짧은 공전 주기의 행성들을 **목성족 행성**이라고 한다.

▶ **맥락 짚기** ▶ 글의 초점을 좁히는 대목이다. 행성 중에서도 태양계에 포획되는 것, 그중에서도 태양과 목성에 의해 포획된 '목성족 행성'에 대해 살펴보는 맥락이다.

- 3) **공전 주기**란 천체가 태양 주위를 한 번 공전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다.

▶ 태양과 목성의 중력에 의해 포획된 '목성족 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문단 2 제한된 삼체문제와 라그랑주 점

- 1) 목성족 행성의 공전 궤도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두 천체 간의 중력 상호 작용이 나타나는 상황과 달리 세 천체 간의 중력 상호 작용이 나타나는 **삼체문제**의 예측 상황인데, '삼체문제'는 계산할 수 있는 일반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두 천체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는 상황에서는 한 천체의 공전 궤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반면 세 천체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는 상황에서는 '일반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목성족 행성의 공전 궤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울 텐데……

- 2) 다만 목성족 행성과 목성, 그리고 태양의 관계처럼 한 천체가 매우 작아서 다른 두 천체에 미치는 중력의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세 천체 간의 중력 상호 작용을 계산하는 **제한된 삼체문제**의 경우, 계산이 가능한 특수해인 다섯 개의 **라그랑주 점**들이 존재한다.

▶ 다만 목성족 행성은 태양과 목성에 비하면 크기가 매우 작아서 중력의 효과도 미미하다. 따라서 세 천체 사이의 중력 상호 작용이 나타나지만 '제한된 삼체문제'에 해당하여 계산 가능한 해가 존재한다.

▶ **맥락 짚기** ▶ 이러한 '특수해'가 목성족 행성의 공전 궤도를 알아내는 데 어떻게 쓰이는지를 의식하며 읽어 나가야 한다.

- 3) 그중 태양과 목성을 연결하는 일직선상에서 목성에 가깝게 위치하는 라그랑주 점인 **L1**은 어떤 물체가 해당 점에 있을 때 태양이 미치는 중력과 목성이 미치는 중력이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여서 상쇄되는 점이다.

▶ 첫 번째 특수해인 L1에서는 태양이 목성족 행성에 미치는 중력과 목성이 목성족 행성에 미치는 중력이 상쇄된다(→ 목성족 행성에 중력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 4) 또 다른 라그랑주 점인 **L2**는 목성에 대해 L1과 대칭되는 곳의 점이다. L2는 행성처럼 공전하는 물체가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는 힘인 원심력이, 해당 물체에 미치는 태양의 중력과 목성의 중력을 합한 힘과 균형을 이루어 상쇄되는 점이다.

▶ 두 번째 특수해인 L2에서는 '원심력'이 '태양의 중력 + 목성의 중력'과 상쇄된다. '목성에 대해 L1과 대칭되는 곳의 점'이라는 설명을 고려하여 L1과 L2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표시해 보자.



- 5) 이들 라그랑주 점들의 위치는 목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함에 따라 함께 변한다.

▶ 이때 목성은 태양 주변을 계속 돌고 있으므로 L1과 L2는 목성과 태양의 일직선상에 계속 존재하지만 우주 공간 내에서의 절대적 위치는 달라진다.

문단 3 궤도 공명

- 1) 그런데 목성의 공전 주기와 목성족 행성의 공전 주기는 다르다. 서로 다른 공전 주기로 공전하다가 태양과 목성, 목성족 행성이 일직선상에 놓이곤 하는데, 그 때에 목성족 행성은 L1에 있거나 L2에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목성족 행성은 여러 라그랑주 점들 중 L1만을 지나서 목성의 공전 궤도 안쪽에 놓이는 공전 궤도를 가지거나 L2만을 지나서 목성의 공전 궤도 바깥쪽에 놓이는 공전 궤도를 가지는 것이다.

▶ 제한된 삼체문제의 특수해인 L1, L2와 목성족 행성의 궤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목성족 행성은 'L1을 지나는 궤도' 혹은 'L2를 지나는 궤도'만 지닐 수 있다.

태양과 목성, 목성족 행성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음 = 목성족 행성은 반드시 L1, L2 중 하나에 위치해 있음

- 2) 목성과 목성족 행성의 공전 주기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 **궤도 공명**이 나타난다. 태양과 목성에 포획된 후 궤도 공명이 나타나기 전까지 목성족 행성의 공전 주기는 목성의 중력에 의해 때론 빨라지거나 느려지는데, 이런 효과가 누적된 결과로 궤도 공명이 나타나면 이후 공전 주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 때에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가 매우 적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 처음 목성족 행성이 태양계에 포획되면 공전 주기가 조금씩 조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다 보면 목성의 공전 주기와 목성족 행성의 공전 주기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는데, 이를 '궤도 공명'이라 한다.

3) 궤도 공명 상태에서 목성과 L1을 지나는 목성족 혜성의 공전 주기의 비가 'm:n'이라면, 목성이 n번 공전할 때 목성족 혜성은 m번 공전하는 셈이 된다.

▶ '간단한 정수비'를 m:n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이때 목성의 공전 주기가 m에 대응된다고 해서 목성이 m번 공전하는 것은 아니니 헷갈리지 말자. 편의상 목성의 공전 주기를 m초, 목성족 혜성의 공전 주기를 n초라고 해 보자. 그렇다면 목성이 n번 공전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m \times n$ 초가 된다. 또한 목성족 혜성이 m번 공전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n \times m$ 초가 된다. 즉 두 시간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목성이 n번 공전할 때 목성족 혜성은 m번 공전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4) 해당 목성족 혜성이 L2를 지나는 목성족 혜성이었다면 목성과 목성족 혜성의 공전 주기의 비는 'n:m'이 된다.

▶ 반대로 L2를 지나는 공전 주기라면 공전 주기의 비는 반대로 n:m이 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목성이 m번 공전할 때 목성족 혜성은 n번 공전하는 셈'이 된다.

목성과 L1을 지나는 목성족 혜성의 공전 주기의 비 = m:n
 목성과 L2를 지나는 목성족 혜성의 공전 주기의 비 = n:m
 (단, m, n은 모두 정수에 해당)

문단 4 공명 호핑

1) 최근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제한된 삼체문제'의 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퍼지 경계 이론'이 제안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목성족 혜성은 L1을 지나는 궤도와 L2를 지나는 궤도 중 하나의 궤도상에서 공전하다가, 퍼지 경계의 영역에 도달했을 때 다른 궤도로 이동하는 '공명 호핑'이 나타난다. '퍼지 경계의 영역'은 목성족 혜성이 공전하다가 태양과 목성, 그리고 자신이 다시 일직선상에 놓여 목성족 혜성이 L1이나 L2에 도달하는 영역을 말한다.

▶ 목성족 혜성은 L1을 지나는 궤도 혹은 L2를 지나는 궤도만을 따른다. 그런데 동일한 공전 궤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공전 궤도를 바꾸기도 한다. 이를 '공명 호핑'이라 한다. 이때 '특정 조건'이라 함은 목성족 혜성이 '퍼지 경계의 영역'에 도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 태양, 목성, 그리고 목성족 혜성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목성족 혜성의 위치는 L1이나 L2일 수밖에 없다[문단3-1]}. 따라서 공명 호핑은 L1을 지나는 궤도상에서 공전하는 목성족 혜성이 다시 L1에 도달하였을 때에, 혹은 L2를 지나는 궤도상에서 공전하는 목성족 혜성이 다시 L2에 도달하였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2) '공명 호핑' 이후에 목성족 혜성은 다음 공명 호핑이 일어나기 전까지 공전 궤도를 유지한다. 이 이론은 대표적인 목성족 혜성의 하나인 오르테마가 목성 궤도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번갈아 관측되는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 '공명 호핑'은 목성족 혜성이 태양, 목성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 이루어지므로, 그다음 '공명 호핑'도 마찬가지로 세 천체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 그렇다면 '공명 호핑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음 공명 호핑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은 결국 각각 다른 공전 주기로 공전하는 목성과 목성족 혜성이 다시 일직선상에 놓일 때까지의 시간과 같다.
 ▶ 목성족 혜성이 퍼지 경계의 영역에 진입했다면 이는 목성족 혜성이 L1 혹은 L2에 위치하였다는 뜻이다. 이때 공명 호핑에 의해 'L2를 지나는 궤도'에서 'L1을 지나는 궤도'로 이동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제 목성이 n번 공전하고 목성족 혜성은 m번 공전한 시점이 되어서야 세 천체가 다시 일직선상에 놓여 [→ 퍼지 경계의 영역에 진입하게 되어] 그다음 '공명 호핑'이 이루어질 것이다.

L2에서 L1로 공명 호핑 ⇨ 목성족 혜성이 m번 공전
 ⇨ L1에서 L2로 공명 호핑 ⇨ 목성족 혜성이 n번 공전 ⇨ ……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1) 중심별인 A와 행성 B, 그리고 혜성 C로 이루어진 가상의 항성계가 있다고 하자. B는 A 주위를 공전하며, C 역시 A와 B의 중력에 영향을 받으며 A 주위를 공전한다.

▶ A를 태양에, B를 목성에, C를 태양계에 포획된 목성족 혜성에 그대로 대응하면 된다[문단1].

2) 시점 T에 C는 B의 라그랑주 점인 L1 또는 L2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점 T 직후에는 해당 라그랑주 점을 지나는 궤도상에서 A 주위를 공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 시점 T는 C가 '퍼지 경계의 영역'에 진입한 때를 의미한다. 그래야만 C가 L1 또는 L2 중 하나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단4-1]}. 그렇다면 '공명 호핑'은 시점 T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보기> 문단 2

단, C는 '퍼지 경계 이론'에 따른 공전 궤도를 가지며, C가 B의 L1을 지나는 궤도상에서 A 주위를 공전할 때에는 B와 C의 공전 주기의 비가 2:1이다.

▶ 문단3에서 '공전 주기의 비'에 대해 정리한 내용에 m에 2를 넣고 n에 1을 넣어 적용해 보자.

B와 L1을 지나는 C의 공전 주기의 비 = 2:1
 B와 L2를 지나는 C의 공전 주기의 비 = 1:2

▶ 다만 시점 T에 C가 L1에 위치했는지 L2에 위치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시점 T에 C가 L1에 위치할 때>

B가 한 번 공전할 때 C는 두 번 공전

⇓ 공명 호핑 ⇓

<시점 T에 C가 L2에 위치할 때>

B가 두 번 공전할 때 C는 한 번 공전

∴ ③번 선지가 적절하다. 시점 T 이후 C가 두 번 공전한 뒤 공명 호핑을 하였다면, 이는 시점 T에 C가 L1에 위치하였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새 공전 궤도'는 'L2를 지나는 궤도'를 가리키고 이 경우에는 B와 C의 공전 주기의 비가 1:2가 되어서 B가 두 번 공전하는 동안 C가 한 번 공전하게 된다.

시문 기법으로 구현된 분청사기의 미감

지문 평가

분청사기의 제작 과정을 바탕으로 박지·조화·귀얄 기법이라는 세 가지 시문 기법의 예술적 의미를 설명하는 지문이다. 통상적인 예술 지문에 비해 과정 중심의 이해가 요구되는 만큼 분청사기의 제작 과정을 잘 정리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자.

Keyword

예술 - 동양 미술 - 분청사기

분청사기, 태토, 백토, 시문 기법, 고려청자, 상감 기법, 박지 기법, 조화 기법, 귀얄 기법, '귀얄문 태호'

문단 1 분청사기와 시문 기법

- 1)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탄생한 **분청사기**는 밀감이 되는 회색 흙인 태토로 형체를 만든 후에 그 표면에 하얀 흙인 백토를 바르고 문양을 낸 도기이다.

➡ '분청사기'의 제작 순서가 제시된 만큼 정리하여 이해하자.

태토로 형체를 만들 ➡ 표면에 백토를 바름 ➡ 문양을 만들

➡ 분청사기는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전환기에 탄생하였다. 해당 시대적 맥락이 작품의 기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의식하면서도 읽을 필요가 있다.

- 2) 분청사기에 담겨 있는 독창적인 미의식은 문양을 만드는 기법인 시문 기법에 의해 구현되었다.

➡ '시문 기법'은 분청사기의 제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적용될 것이다.

맥락 짚기 ▲ 초점이 '시문 기법'으로 좁혀지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문양을 만드는지, 그것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에 주목하면서 읽어 나가자.

문단 2 분청사기의 등장 배경

- 1) 왕실과 귀족층에 의해 향유되었던 **고려청자**는 풍류를 즐기는 우아한 정서와 깨달음의 세계를 동경하는 불교적 이상이 반영된 것이었다. 고려 멸망으로 인해 국가 주도로 운영되던 관요의 도공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국가적 요구나 규정된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되자, 자유롭고 소박한 미의식이 담긴 실용적인 도기인 분청사기가 등장하였다.

맥락 짚기 ▲ 분청사기 이전의 도기인 '고려청자'는 어떠했는지 먼저 살펴보는 맥락이다. 고려청자 자체보다는 그것과 구분되는 분청사기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려청자의 '우아한 정서'와 분청사기의 '자유롭고 소박한 미의식'을, 고려청자의 '국가적 요구나 규정된 형식'과 분청사기의 '실용적'을 대비하여 이해하면 된다.

- 2) 태토에 칼로 문양을 정교하게 새긴 후에 백토와 붉은 흙인 자토로 이를 메우는 고려청자의 **상감 기법**이 분청사기에도 계승됐지만, ……

➡ 조선 시대의 도기인 분청사기에 고려 시대의 기법이 쓰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분청사기만의 미의식을 구현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 3) …… **서민의 개성적이고 대담한 취향**을 반영하여 점차 태토의 질감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한편 **박지, 조화, 귀얄** 등의 다양한 시문 기법도 적용되었다.

➡ 고려청자와 분청사기의 특징을 구분하여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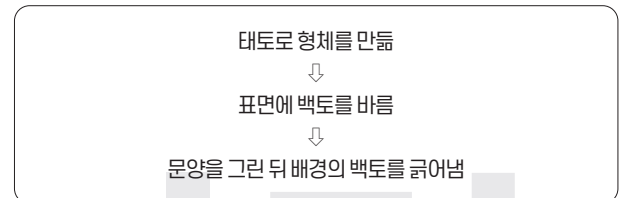
고려청자	분청사기
왕실과 귀족층 우아한 정서, 불교적 이상 국가 주도의 관요 규정된 형식	서민 자유롭고 소박한 미의식 국가와 무관한 독립된 도공들 개성적이고 대담한 취향

맥락 짚기 ▲ 지문의 초점에 대응하는 '시문 기법'이 다시 언급되었대[문단1-2] 구체적으로 언급된 '박지, 조화, 귀얄'이 각각 어떤 기법인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단 3 분청사기의 박지·조화·귀얄 기법

- 1) **백토를 바르는 분장을** 하고 꽃 등의 **구체적 형상을 표현하는 문양**을 그린 뒤 문양을 제외한 배경의 백토를 **긁어내는 박지 기법**의 질박하고 수더분한 멋도 탁월하지만, ……

➡ '박지 기법'에 따라 만들면, 문양을 제외한 나머지 백토 부분은 제거된 결과 배경은 태토에 의해 회색빛으로, 문양은 백색으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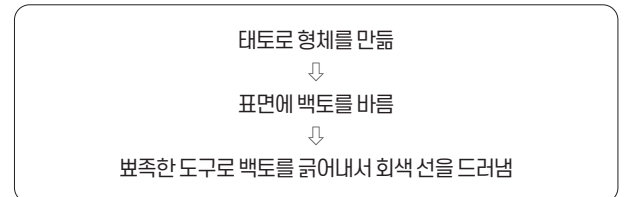


- 2) …… 분청사기의 **자유분방한 예술미**는 조화 기법과 귀얄 기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 '박지 기법'에 비해 나머지 두 기법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유분방한 예술미야말로 분청사기의 정수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 3) 백토 분장 후에 뾰족한 도구로 원하는 문양의 선을 새겨 **백색 바탕에 회색 선이 드러나도록 하는 조화 기법**은 인위적인 기교 없이 낙서하듯 선을 그어 즉흥적인 미감이 우러나오도록 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에서는 학이나 연꽃 같은 구체적 형상을 재현하는 관습 대신에 **단순하고 추상적인 문양**이 추구되었는데, 그 선의 흐름은 **의미를 담지 않은 채 억눌린 내면 감정을 거침없이 표출하는 듯 생동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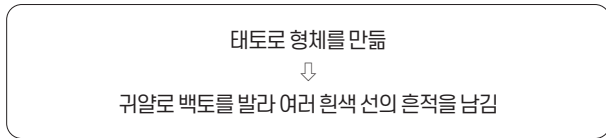
➡ '조화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표면에 바른 백토를 뾰족한 도구로 긁어냄으로써 안쪽의 밀감인 태토를 드러내어 '회색 선'으로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 '박지 기법'과 달리 구체적 형상을 재현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회색 선'은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공의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해 낸다. 이것이 바로 분청사기의 '자유분방한 예술미'이다.

- 4) **귀얄**이라는 뾰뚱하고 거친 솔로 백토를 발라 문양을 만드는 **귀얄 기법**에서는 **귀얄이 지나간 흔적이 여러 선으로 여과 없이 드러나**므로 즉흥성이 조화 기법보다 한층 더 부각된다.

➡ 마지막으로 '귀얄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번에는 분장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분장의 단계에서 문양이 만들어지는 기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귀알 기법도 조화 기법과 마찬가지로 '추상적 문양'을 만드는 기법인데, 다만 즉흥성의 정도는 보다 강하다. 세 가지 시문 기법을 구분하여 정리해 보자.

박지 기법	조화 기법	귀알 기법
백토 분장 후 그림 구체적 문양 즉흥성 약함	백토 분장 후 새김 추상적 문양 즉흥성 강함	귀알로 백토 바른 추상적 문양 즉흥성 아주 강함

문단 4 귀알 기법의 미적 효과

1) 16세기에 제작된 분청사기인 「**귀알문 태호**」는 물레를 돌리면서 귀알로 백토를 단번에 칠한 도기이다.

➡ '귀알 기법'이 적용된 구체적 예시를 들고 있다. 귀알 기법의 제작 과정과 특징을 적용하면서 읽어 나가자.

2) 문양에 도기의 제작 과정이 드러나지 않고 최종 산물만이 완상(玩賞)의 대상이었던 고려청자와 달리, 이 도기에는 백토를 바르는 도공의 속도감 있는 손놀림이 귀알 자국의 선으로 자연스럽게 남아 있다. 여러 번 덧칠하면 이러한 속도감이 드러나지 않았을 테지만 한두 번의 솔질로 표현된 귀알 문양에는 도공이 긴장하며 몰입했던 순간이 생생히 담겨 있다.

➡ 「귀알문 태호」에 드러나는 귀알 기법의 '즉흥성'이다. '속도감 있는 손놀림', '긴장하며 몰입했던 순간' 등에 주목하자.

3) 도기의 표면을 따라가다 보면 귀알 문양의 선 두께도 일정하지 않은데, 그로 인해 두꺼운 곳은 백토의 빛깔이 진한 반면 얇은 곳은 태토의 빛깔이 새어 나와 두 빛깔이 우연적으로 겹쳐 조화를 이루는 효과가 나타난다.

➡ 「귀알문 태호」에 드러나는 귀알 기법의 '우연성'이다. 귀알은 뽀뽀하고 거친 솔이므로 지나간 흔적을 여러 선으로 드러내는데, 선 두께의 차이가 우연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문단 5 분청사기의 미감과 회화적 가치

1) 치밀한 계획에 따라 기교를 부린 전통 공예품과 달리 즉흥적인 작업에 의해 우연적으로 발생한 멋스러운이 기교 이상의 미감을 자아내므로, 분청사기는 '무기교의 기교'라는 칭송을 받는다.

➡ 즉흥성, 우연성과 관련하여 분청사기의 미감을 '무기교의 기교'라는 표현으로 정리하고 있다.

2) 특히 재현에 덜 집착함으로써 선과 색은 대상이나 그와 관련한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도공들이 선과 색에 내면의 정서를 자유롭게 담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래서 분청사기의 일부 문양들은 단순히 표면을 장식하는 요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회화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 분청사기의 '선과 색'에 담긴 의미들이다. 특정 대상, 혹은 특정 대상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 → '구체적 형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도공 내면의 정서를 담을 수 있었다. 조화 기법, 귀알 기법에 대응하는 설명으로 이해하면 된다.

<보기>문단

1) 본래 공예품이 기술에 의존한 '차가운 사물'이라면, 회화는 감정과 내면을 표출하는 예술적 양식이다. 작가의 내면에 자리한 정감의 표현을 위해 중요한 것은 '직감'이다. '직감'은 이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성에 의해 구현된다.

➡ '공예품'과 구별되는 '회화'의 특징이다. '감정과 내면의 표출', '즉흥성'은 모두 분청사기의 특징과 맞닿아 있다.

주목 ▲ 이 대목에서 왜 분청사기를 공예품이 아니라 일종의 회화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는지 지문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문단5-2]

2) 서양 예술에서 모더니즘 정신이란 이성에 기초한 의미 창출의 해체와 전통의 해체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일인데, 즉흥성과 우연성이 그 중심에 있다.

➡ '모더니즘 정신'은 서양의 현대 예술을 특징짓는 중요한 관점인데, '즉흥성'과 '우연성'의 키워드는 분청사기의 미감을 자아내는 특징이기도 하다[문단5-1]

∴ 따라서 ㉞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귀알 기법에 의한 문양은 '즉흥성에 의해 구현'되는 것으로 '직감'에 대응된다. 그렇다면 귀알 기법이 적용된 분청사기는 '차가운 사물'이 아니라 '회화'에 대응된다.

3) 하얀 천을 바닥에 펼쳐 놓고 여러 색의 물감을 흠뻑려 우연한 선과 색을 만드는 폴록의 액션 페인팅은 그 대표적인 기법이다. 그 선의 예술은 내면적 충동의 표현이자 우연한 행위의 잔상마저 남기는 효과를 낳았다. 선이 지닌 우연성은 회화가 조각이나 공예와 차별화하면서 회화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데에 기여했다. 그 고유성은 3차원적 환영에서 벗어난 평면성에 있다.

➡ 모더니즘 정신을 잘 드러낸 작가로 '폴록'이 제시됐다. 즉흥성, 우연성에 의해 작가의 내면적 충동이 드러난다는 설명을 문단5의 설명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된다.

➡ 이때 '3차원적 환영'은 2차원 회화가 3차원 실세계의 대상을 재현하려는 것을 가리킨다. 아무리 애를 써도 2차원의 화폭에 3차원의 대상을 담을 수 없듯이, 그러한 재현은 결국에는 '환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반면 '평면성'은 2차원 회화가 지닌 있는 그대로의 속성으로서, 3차원 실세계의 무언가를 재현하는 대신에 그 자체로 작품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분청사기에 구체적 형상 대신 추상적 형상을 담아내는 것도 3차원 환영을 없앤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나) 『영월행 일기』

—이강백—

수록 지문 평가

지문의 상황을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일단 넘어가면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고 난 후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보자.

[앞부분의 줄거리] 신숙주의 하인이 남긴 기록인 『영월행 일기』를 입수한 고서적 연구가 조당전에게 김시향이 찾아와, 그 책은 자기가 남편의 것을 훔쳐 판 것이라며 돌려 달라고 간청한다. 조당전은 책을 돌려주겠다며, 대신 책의 내용을 재현하자고 제안한다. 그러고는 신숙주의 하인이 한명회의 여종을 당나귀에 태우고 여정을 떠난 『영월행 일기』 속 내용처럼, 조당전은 김시향을 바퀴 달린 당나귀 모형에 태운 채 고삐를 잡고 달린다.

조당전 : 헉헉…… 숨이 가빠……. 잠시 쉬자구……. 그런데 여긴 어디일까?

▶ 질문의 의도가 묘하다. 지금 두 사람은 조당전의 방 안에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긴 어디'냐고 묻고 있다.

김시향 : 우린 땀을 흘렸어요. 방 안을 빙빙 돌다가 제자리에 멈춘 거예요.

▶ 김시향의 상식적인 대답이다.

조당전 : 아니야. 굉장히 멀리 온 거야.

▶ 방 안을 맴돌았을 뿐인데 '멀리 온' 것이라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조당전 이 지금 자신을 과거에 영월로 가던 신숙주의 하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김시향 : 제 소지품이 없어요!

조당전 : 없다니…… 뭐가?

김시향 :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요! 당나귀를 타기 전까지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조당전 : 정말 아무것도 없어?

김시향 : 없단니까요!

조당전 : 이런…… 달리는 동안에 떨어뜨린 모양인데…….

김시향 : (당나귀에서 내려와 주위를 살펴본다.) 저기 핸드백이 떨어져서 열린 채 있군요. 화장품들은 튕겨져 나가 있고 손거울은 깨졌어요. (흩어진 물건들을 주위 핸드백에 담는다.) 아까 멈춰 달라고 했을 때 멈췄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조당전 : 그땐 멈출 상황이 아니었어.

김시향 : 선생님은 저를 당나귀에 태웠던 때부터 반말을 하시는군요.

▶ 처음 조당전이 김시향을 만났을 때는 존댓말을 했을 텐데 지금은 반말을 하고 있다.

조당전 : (『영월행 일기』를 펼쳐서 한 대목을 가리킨다.) 그게 궁금하거든 이걸 읽어 보라구.

김시향 : 난 옛날 글자는 못 읽어요.

▶ 이 작품 속 가상의 책인 『영월행 일기』는 조선 시대 인물인 신숙주의 하인이 남긴 한글 일기로, 고어로 쓰여 있다.

조당전 : 그렇다면 내가 읽지. “영월을 가는 동안 우리〔신숙주의 하인과 한명회의 여종〕는 부부 행세를 해야 했다.”

▶ 조당전은 신숙주의 하인이 한명회의 여종과 부부 행세를 했듯 김시향이 당나귀에 탄 순간부터 부부 행세를 하는 차원에서 반말을 한 것이다.

김시향 : 부부라니요?

조당전 :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야. (책을 읽는다.) “상전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당부하는 이 일은 지극히 은밀한 것이니,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김시향 :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영월행 일기』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다.〕

조당전 : 영월에 유배시킨 임금, 단종을 살펴보고 오라는 거야. 임금과 대신들, 그런 높으신 분들께서야 직접 가서 볼 수는 없고, 양반 출신을 보내자니 이해관계에 따라 본 것을 왜곡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하찮은 종놈과 종년을 뽑은 거지. (책을 읽는다.) “너희 둘을 함께 보낸 은 혹여나 혼자 잘못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즉 너희는 영월에서 본 것만을 사실대로 말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바라는 것을 상으로 주리라.” (책을 덮고 김시향에게 묻는다.) 임자는 뭘 바라겠어?

김시향 : 글썽요…… 뭐가 좋을까…….

조당전 : 내가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 자유야.

김시향 : 자유……?

조당전 :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것,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당나귀를 끌고 와서 김시향 앞에 세운다.) 자, 그만 쉬고 가자구!

▶ '종살이'라고 한 것을 보니, 조당전이 자유를 바란다고보다도, 신숙주의 하인이 바란 바를 조당전이 말한 것에 가깝다.

(중략)

조당전 : 지루하거든 경치를 구경해.

김시향 : 경치라니요?

조당전 : 8백 리 길〔영월로 가는 길〕이 모두 볼거리야.

김시향 :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여요.

▶ 당연하다. 이 영월로 가는 길은 사실 조당전의 방 안이다.

조당전 : 마음의 눈으로 봐.

김시향 : (침묵한다.)

조당전 : 옛날 어릴 적 기억나? 따뜻한 봄이 되면 아이들은 참 좋아했었지. 풀과 나무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예쁜 꽃들이 피었어. 추운 겨울 동안 집 안에만 웅크리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보게 되는 그 환한 광경, 마치 봉사가 눈을 뜬 순간처럼 신기하고 놀라웠지. 아, 저기 나비 좀 봐!

김시향 :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노랑나비예요? 흰나비예요?

▶ 지금껏 조당전의 말에 호응해 주지 않던 김시향이, 드디어 호응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조당전 : 왜 눈은 가리고 묻지?

김시향 : 옛날 어른들이 말씀했었죠. 그해 처음 노랑나비를 보면 운이 좋고, 흰나비를 보면 운이 나쁘대요.

조당전 : 그렇다면 가만히 눈을 떠 봐.

김시향 : (가렸던 손을 떼고 허공을 바라본다.) 어마나, 노랑나비네!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여기도 노랑나비! 저기도 노랑나비! 온통 노랑나비 떼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 방 안에 노랑나비가 있을 리가 없다. 김시향이 조당전의 연극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당전 : 임자, 처음엔 내키지 않더니 이젠 흥이 났군.

김시향 : 선생님은요, 선생님도 흥이 나셨으면서!

조당전 : 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

김시향 : 그럼 어떻게 부르죠?

조당전 : 임자라 불러.

김시향 : 임자……?

조당전 : 당신이라 부르든가.

김시향 : (웃으며) 호호호, 당신…….

➡ 김시향은 조당전을 '선생님'이라 부르다가 '당신'이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호칭의 변화는 김시향이 점점 조당전이 제안한 연극에 몰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2~34] 현대시

(나) 「추억-‘감자 먹는 사람들’, 빈센트 반 고흐」

- 정진규 -

작품 평가

빈센트 반 고흐의 회화 작품을 모티프로 차용하여, 작가의 가난했던 과거 시절을 고된 노동과 비참한 가난에 시달리는 한 가족의 모습으로 그려 내고 있다.

제 1연 가난한 가족의 식사 모습

식구들은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말없이 먹었다

신발의 진흙도 털지 않은 채

흐린 불빛 속에서

늘 저녁을 그렇게 때웠다

➡ 가난한 집안의 저녁 식사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빈센트 반 고흐의 회화 작품 「감자 먹는 사람들」이 연상되는 장면이다.



저녁 식탁이

누구의 손 하나가 잘못 놓여도

빼꺼거렸다

➡ '빼꺼거리는' 낱은 '식탁'은 가난한 살림살이를 암시한다. 나아가 가난 속에서 평온할 리 없는 위태로운 가족의 분위기를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셋째 형만이

언제고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고된 노동과 가난으로 점철된 삶에 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모습]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된 나날이었다

➡ 너무 힘든 삶이라 말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푸념을 늘어놓은들 달라질 것도 없고 서로 더 힘들어질 뿐이기 때문이다.

제 2연 노동과 잠이 반복되는 고된 삶

잠만은 편하게 잤다[→ 고된 노동에 시달렸음]

잘 살아진 굵은 감자알들처럼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처럼

서걱서걱 흙을 파고 나가는

삼질 소리들을 꿈속에서도 들었다[→ 노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음]

누구나 삼질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고난[→ 삼질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 고된 노동과 비참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대한 자조와 체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맛있는 잠! 잠에는

막힘이 없었다

➡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었을 것이다. '막힘이 없다'는 건 '흠을 파고 나가는' 노동의 이미지와 결부된 표현이다.

제 3연 작은 희망과 바람

새벽에는

빗줄기가 조금 창문을 두드렸다

제일 부드러웠다

새싹들이 돋고 있으리라 믿었다

➡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빗줄기'를 보며 그 비가 적신 땅에서 '새싹'이 돋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이는 부정적 상황에서도 놓지 않은 작은 희망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은 하루쯤 쉬어도 되리라

식구들은

목욕탕엘 가고 싶었다

➡ 화자의 가족들은 휴일도 없이 흠을 파는 육체노동을 하고 있지만, 비가 오는 날만큼은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비 오는 날은 곧 휴식일이 되는 셈이다. '하루쯤' 쉬고 싶다는 말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음을, '목욕탕'에 가고 싶다는 말은 목욕을 한 지가 오래되었음을 내비친다. 즉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이감